

'경전요점 노트' 어려운 교리 속속

청계사 '법화경 줄거리와...' 펴내

'경전요점 노트'를 아십니까. 28명이 한 품씩 맡아 불법의 요점만을 간추려 편집한 경전요점노트가 최근 불자들의 새로운 교리공부모임을 받고 있다. 의왕시 청계사(주지 지명)가 (법화경 줄거리와 요

점쳐 노트)를 내놓는데 이어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도 금년을 '경전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계획을 수립, 교리공부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전 요점노트는 신심배양과 포

교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불교교리가 쉽게 풀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과 함께 경전을 풀이해 (법화경의 줄거리와 요점쳐 노트)를 펴내 지명스님(의왕시 청계사 주지)의 경전모임 예산본이다.

경전모임은 청계사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이제는 일반화

공부를 발원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신도들은 무작정 어렵다고만 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경전의 줄거리를 모은 요점노트를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전요점노트의 특징은 신도들이 대부분 저학력이고 고령이라는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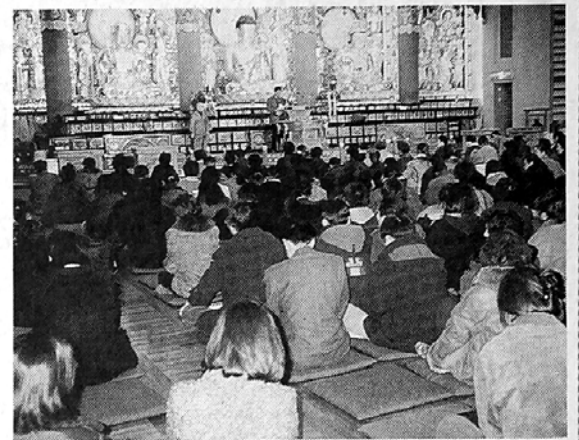
징을 감안, 한문투성이인 경전을 신

지니고 있다. 경전요점노트는 요점만 간추려 놓았기 때문에 한문경전과는 다른점이 많다. 우선 분량이 적고 짧은 시간에 경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십년간 묵도 모른채 수지독송하던 기도의 방법을 바꿔놓은 것이다.

20여년간 수행생활을 해왔다는 한 김수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경전공부를 해왔으나 경전의 이름만 알았지 각 경전의 의미를 몰랐다"며 "경전요점노트로 공부하니 머리에 속속 들어와 수행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청계사 경전공부는 매일 일찍 24일 관음재일 한차례, 하지만 신도들의 반응이 좋아 월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경전마다 요점노트를 연차적으로 펴내 청계사 신도는 물론 각 사찰 신도들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입학전 사찰에서 올바른 캠퍼스 문화를 배우고 있는 예비 대학생들.

"준비하는 자 미래 밝다"

능인선원 '예비대학생 강좌'... 2월 1일까지

대학은 과연 남만의 공간인가. 입시지옥에서 벗어난다고 고스란히 자유로운가. 남만 자유 학문도 미리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지난 20일 예비대학생을 비롯 학부모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예비대학생을 위한 능인 청소년 교양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오는 2월 1일까지 계속된다.

첫날에는 화두와 용맹정진(지광스님), 21일에는 대학캠퍼스의 올바른 예절(서강대 서정목 교수)이 이뤄지는 등 능인선원은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보고서는 컴퓨터로 작성해야 됩니다. 질문은 활발히 하고 모든 강의는 노트해야 합니다." 캠퍼스 예절론에 대한 서정목교수의 강의가 진행될 수록 3백여명의 예비대학생들은 눈빛은 더욱 초롱초롱 해졌다. 송호운군(취문고졸·수원 협성

대 성야교)은 "캠퍼스의 생활이 남만만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며 "오늘부터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30일 예비 신사숙녀(경희대 이동신교수), 미국캠퍼스의 낭만(동국대 박정국교수), 31일 독일캠퍼스의 열정(성균관대 손동현 교수), 북에서 보낸 나의 꽃다운 시절(전 북한 민수대 예술단 신영희씨), 2월 1일 우리 가락 우리멋(중앙대 박범훈교수) 등 총 10회에 걸쳐 마련된다.

지광스님은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예비대학생시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각 교수들의 강의를 잘 들으면 대학생활을 여유롭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능인선원은 매년 동·하계 겨울방학을 이용, 상설적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28명 한 품씩 맡아 간추려 편집 "무조건 독송하다 뜻 알게돼 기뻐"

돼 있는 수행활동이다. 학문연구모임이기 보다는 경전을 독송하려는 신도들을 위한 공부모임이다.

이같은 경전모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94년. 영등포 포교원에서 도심 포교활동을 펼치던 지명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실시한 경전공부를 토대로 (지장경)을 펴내 신도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지명스님은 "처음 신도들에게 불교교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 경전

행활동에 도움이 되는 요점만을 간추려 편집했다는 것. 이리하여 그동안 경전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독송하던 신도들은 불법공부가 깊어져 기도도 잘되고 절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경전요점노트는 무엇보다 이해가 빠르다. 철술의 할머니부터 10대의 청소년들까지도 누구나 불법에 쉽게 감화될 수 있고 포교의 역량도 키울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장점도

◇경전의 요점만을 간추려 한글로 펴낸 (경전요점노트)가 불자들의 교리공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10대들을 잡아라' 선재연구모임(회장 범법스님)은 신세대 청소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특명을 내렸다. 바로 10대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끄는 '꼭지 포교'다.

선재연구모임은 △불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른 이해 △바른 청소년문화 선도 △건전한 청소년상 확립을 목적으로 10대들을 위한 꼭지 <선재들의 속삭임>을 오는 2월 창간한다고 밝혔다.

월간 <선재들의 속삭임>은 16면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편지를 통해 들어보고 답하는 형식의 '이런 고민이 있어요'를 비롯 명사들의 청소년 시절, 이런 때 이런 생각, 어른들은 불리요, 신도들이 자부심, 문화대신

선재연구모임 '선재들의 속삭임' 2월 창간

10대들 꺼안은 '꼭지 포교'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행된다. 또 <선재들의 속삭임>은 월 1만부를 전국의 사찰 학교 불교화생활회 비롯 청소년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해 청소년 포교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선재마을 청소년법당 유지선 법사는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포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꼭지) 발행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재연구모임이 각 종교별로 '10대들을 위한 꼭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종교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대들만을 위한 꼭지를 발행한 결과 청소년 전도에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는 (아침사)를 비롯 3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나 효과와 반응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선재연구모임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타종교는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性),

진로, 가정등의 문제를 다룬 상담지를 비롯 문화지, 환경지, 소식지, 신앙지 등 각 분야별로 꼭지를 발행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종교를 선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계의 꼭지는 교리, 시, 수필, 알림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꼭지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휴대가 편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며 10대들의 고민을 풀어 줄 수 있는 내용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창간되는 <선재들의 속삭임>은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방향 설정은 물론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화

꼭지

百

유경

이향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8시 30까지
-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과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